

# FASHION NOW

2023 의류제조혁신포럼 Brief



2023 의류제조혁신포럼은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 급변에 대응하고자  
국내 의류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 사례를 담아 포럼으로 개최하였습니다(23.11.21)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의류제조혁신포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방안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 주요내용

🌐 국내 의류 기술 경쟁력, "5년 후 중국보다 뒤처진다"... 가격 경쟁 열세

국내 의류 생산량은 '20년 지나친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21~'22년 증가하였지만 '23년 수입 증가 속 수출 둔화, 경기 위축에 의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 생산업체들의 영세화, 인력 고령화, 낮은 수익·생산성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후발 개도국(중국, 베트남 등)과의 가격 경쟁력 열세, 패션 선진국(이탈리아, 프랑스 등) 브랜드력과 디자인 열세 ▶ 세계시장 상실(0.4%), 내수산업으로 전환
- 기술 경쟁력 : 5년 후에 중국보다 뒤처질 것으로 전망
- 가격 경쟁력 : 중국보다 뒤처지고, 5년 후에 선진국에도 뒤떨어질 전망

	중 국		미 국		일 본		이탈리아	
	2023	2028	2023	2028	2023	2028	2023	2028
가 격	118.4	117.5	98.4	100.1	93.7	95.8	97.7	103.8
기 술	88.3	102.3	106.9	113.0	114.1	115.7	122.2	124.7
패션소재조달	108.8	135.5	115.9	116.4	105.2	122.0	121.7	125.1
품 질	73.0	90.9	109.9	112.7	117.6	120.8	122.9	125.8
디자인	66.6	83.6	110.7	116.5	109.1	112.9	137.9	138.6
브랜드 이미지	56.0	72.7	122.8	126.2	111.9	115.5	143.3	146.1
종합평가	85.2	100.4	110.8	114.2	108.6	113.8	124.3	127.4

출처 | 산업연구원 박 훈 연구위원 제공

## DX 통한 제조 혁신, 다품종 소량 체제로 비즈니스 모델 변혁

###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로봇화

- 공장내 물류 자동화(Conveyer system) ▶ 물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 기업 고부가가치·차별화 제품 생산 역량 강화

-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구축, 차별화 및 성장 시장 개척
- 기능성 섬유소재 업체와의 협업 생산으로 차별화 제품 생산 역량 강화

###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 현장 기술자 ▶ 트렌드·신기술 반영한 업그레이드 기술 교육 실시로 생산 역량 강화
- 20~40대 창업자 ▶ 입체 패턴·샘플사 양성 교육 지원으로 젊은 인력 유입 유도
- 경력 단절자, 봉제업체 유경험자 ▶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 연계

## 다음으로 차세대 리더들에게 의류 제조 혁신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 ① 셀 생산 방식을 통한 제조 경영혁신 (VIEPA)

비에파(VIEPA)는 국내 패션 시장 내 온라인 유통 채널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셀생산(팀생산)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셀생산 : 소규모 단위로 숙련된 기능공이 대부분의 공정 담당

💡 꾸준한 물량 투입을 위해 시즌 오더 총량제를 도입, 아이템별 수량과 매출 예측이 어려운 온라인 브랜드의 경우 초도 수량을 적게, 리오더로 대응을 유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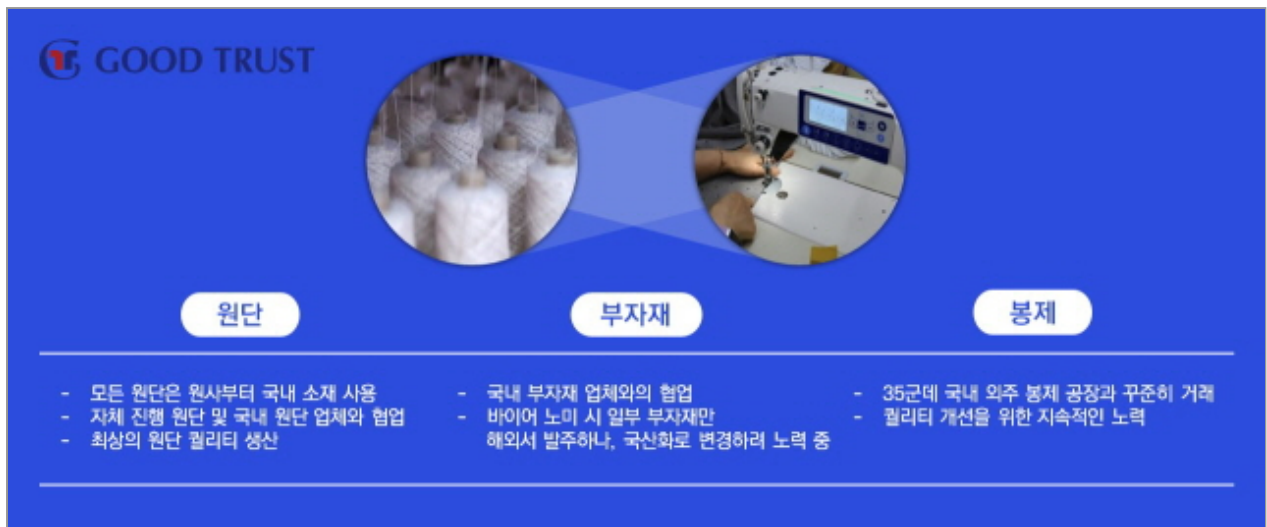


비에파 윤순민 대표는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졸업 후 대기업 테크니컬 디자인팀 입사 후 1년 만에 퇴사하여 27세에 패턴실을 창업하였습니다. 현재는 업계 9년차로서 프리미엄 의류 시장에서 최고의 제조 하우스로 명성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30대 개발인력 6명, 40~50대 하이엔드 기술인력 30여 명을 셀생산 방식으로 조직·운영중에 있습니다

### ② 100% 내수 생산으로 최상의 퀄리티 실현 (GOOD TRUST)

굿트러스트(GOOD TRUST)는 원사-원단-부자재-봉제 전 공정을 국내산 100%를 유지하며 꾸준한 개발 및 투자로 국내 의류제조업체들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 100% MADE IN KOREA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디자인 및 제품 개발과 완벽한 품질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국내 섬유&패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합니다



굿트러스트 박영근 대표(발표 전상호 부장)는 Made In Korea 제품으로만 '22년 한 해 5,000만불 수출 탑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미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성조기 마스크를 제안해 현재 급속도로 성장한 미국 start-up 바이어인 Rhoback사로부터 100만장의 의류 제품 수주를 받는 등 바이어사와 동반 성장중인 기업입니다

### ③ ESG 우수 기업 경영을 통한 의류제조 창업 롤모델 제안 (INLAB)

인랩(INLAB)은 고객과 직원, 협력사, 사회와 상생하며 ESG 경영을 도입한 사례 발표를 통해 의류제조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 ESG 경영 도입 후 압도적으로 적은 불량률과 월등히 높은 예측 가능성, 일관된 품질로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 ESG 경영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경영 방식

사업장의  
스마트화

취약계층  
중심 채용

선택근무제

지속적인  
기부

**인랩 손석봉 대표**는 20살 대학생 때 명품의류 구매대행을 시작으로 단체복 프로모션과 수영복, 레깅스 등 기능성 옷들을 하청 공장에 의뢰, 검수, 납품하는 일을 하다 이후 직접 봉제공장까지 설립하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여개 대학 100여개 학과 과점퍼를 전문으로 생산, 납품하는 업계 16년차의 베테랑으로 올해 ESG 우수 중소기업과 소셜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류제조혁신포럼에 관해 **제안하고 싶은 점, 다루었으면 하는 토픽**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의견 남기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포럼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견 남기기

한국패션산업협회 | [gff@koreafashion.org](mailto:gff@koreafashion.org)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16F 한국패션산업협회

